

최인훈 〈廣場〉의 환상성 연구

- 주인공 이명준의 욕망에 대한 심리를 중심으로 -

박 해 량*

차 례

- | | |
|--------------------|---------------|
| I. 서론 | 3. 타고르호에서의 환상 |
| II. 이명준의 욕망에 대한 환상 | 4. 이명준의 심리 세계 |
| 1. 남한 현실에서 욕망의 대상 | III. 결론 |
| 2. 북한 현실에서 욕망의 대상 | |

국문초록

최인훈은 여러 작품에서 유년기 체험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유년기의 체험은 작품에서 환상으로 나타나며, 환상과 현실의 반복으로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본고는 〈廣場〉을 자끄 라강의 ‘욕망이론’과 에리히 프롬의 ‘도피의 메카니즘’을 적용하여 주인공 이명준의 심리적 세계를 분석한다. 사실주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廣場〉을 환상성이라는 시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에 의한 대상의 환유과정은 이명준의 욕망심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인공 이명준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성인이 되어 그 대상을 바꾸어가며 충족하려고 한다. 그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충족하지 못한 욕망은 남한 현실에서 운애로 대체되며, 운애에게 충족하지 못한 그의 욕망은 북한 사회로 대체된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도 그의 욕망은 충족하지 못하고, 은혜에게 대체된다. 전쟁으로 인한 은혜의 죽음으로 다시 새로운 욕망 충족을 위해 중립국으로 향하지만 그것 또한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 푸른 바다를 유영하는 갈매기들은 그가 사랑하는 은혜와 딸이 환각되어 보인다. 그는 그녀들이 유영하는 푸른 바다로 뛰어든다. 푸른 바다는 이명준이 현실에서 욕망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곳으로 여겨진다. 현실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욕망의 대상을 바꾸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명준은 본능적인 욕망 충족에 충실한 인물이다.

인간의 욕망은 죽음만이 충족시킨다는 프로이드의 말은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말과 같다. 이명준의 본능에 대한 욕망은 환상 속의 자유로 끝났지만, 그의 환상과 죽음에 대한 심리적 고찰은 <廣場>을 욕망과 환상이라는 각도로 분석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환상, 욕망이론, 은유와 환유, 동일화, 상상계, 상징계, 자아분열, 권위주의

I. 서론

최인훈은 유년기에 일제 식민 치하를 경험하고, 이후 북한과 남한에서 생활하였다. 그의 유년기 체험은 여러 작품에서 반복되고, 변화되어 나타난다.¹⁾ 유년기의 체험은 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작

1) 『구운몽』, 『회색인』, 『서유기』, 『화두』 등에서 유년기의 체험 현상이 표현한다. 유년기의 반공호 속의 첫경험과 학교 교실에서 자행된 자아비판의 상흔은 여러 작

품 안에서 환상성²⁾으로 드러난다. 작품 속 환상과 현실의 반복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그의 독특한 문학세계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³⁾ 특히 <廣場>은 전후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 되었다.⁴⁾ 발표 당시의 평가는 ‘광장’과 ‘밀실’의 대립구도 속에

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환상은 허구적인 구성물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망들이 성취되는 장소이고, 양식이다. 프로이드는 환상이 정신분석학적 진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조건이라고 깨닫고, 무의식적 욕망은 온전하게 재현되거나 기억을 통해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고 말한다. 유중호 외, 『문학비평용어사전 하』,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국학자료원, 2006, 1038쪽 참조.

토도로프는 환상성의 조건을 첫째, 텍스트에 나타난 초자연성에 의해 독자의 망설임이 있어야하고, 둘째, 작중인물이 이 망설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독자가 텍스트에 대해서 특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독자가 <시적>, <우의적> 해석을 거부해야 한다고 하였다. 토도로프, 『환상문학 서설』, 이기우 옮김, 한국문화사, 1996, 131쪽.

로즈메리 잭슨은 환상의 사회적 맥락을 중요시하였다. 환상이란 문화적인 속박으로부터 야기된 결핍을 보상하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환상은 욕망에 관한 문학으로 부재와 상실로 경험되는 것들을 추구한다. 그리고 환상성은 비-의미화의 영역을 향한다고 보았다. 로즈메리 잭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문학동네, 2001, 54-60쪽 참조.

본고는 ‘환상’을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상징화 될 수 없는 실제계의 파편으로 한정하고, ‘환상성’은 ‘환상’을 내포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한다.

- 3) 김기우, 「최인훈 소설 연구: 최인훈의 예술론과 창작이론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김인호,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주체성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서은선, 「최인훈 소설의 사사형식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서은주, 「최인훈 소설 연구-인식 태도와 서술 방식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이연숙, 「최인훈 소설 연구-광장에서 화두까지 주체의 욕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연남경, 「최인훈 소설의 자기 반영적 글쓰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정영훈,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주체성과 글쓰기의 상관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등 다수

서 남북한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었다.⁵⁾

5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좀 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⁶⁾ 특히 일부 연구자들이 최인훈 소설의 환상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미영은 최인훈 소설에서 환상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최인훈 문학의 미학적 특징을 규명하였다. 특히 서사구조와 서술방식 및 주체 양상을 분석하여 성과를 이루었다. <廣場>에 대해서는 개작 전후의 주제와 주체 변화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하였다. 송명진은 최인훈 소설의 사실효과와 환상효과를 연구하였는데, <廣場>은 사실 부분으로 분석하였다. 허영주는

-
- 4) 강은아,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분단 콤플렉스 양상」,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권영민, 「정치적인 문학과 문학의 정치성」, 『작가세계』제4집, 세계사, 1990, 2.
 김경욱, 「최인훈 소설의 이데올로기 비판 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배미선, 「최인훈의 광장 연구-실향의식과 자기동일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유종호, 「소설과 정치적 함축」, 『최인훈』, 서강대학교출판부, 1999, 98-122쪽.
 한형구, 「최인훈론:분단시대의 소설적 모험」, 『문학사상』, 1989. 4. 등 다수
- 5) 백 철, 「하나의 돌이 던져지다」, 《서울신문》, 1960.11.27.
 신동한, 「확대해석의 의의」, 《서울신문》, 1960.12.14.
- 6) 김현은 개작 과정을 살펴보면서 민음사판까지가 이명준의 죽음을 이데올로기적 죽음으로 강조하고, 전집판에서는 사랑을 확인하는 행위로 묘사한다. 김현, 「사랑의 재확인」, 『광장/구운몽 : 최인훈 전집1』, 문학과지성사, 1985, 343-352쪽.
 김병익은 『광장』의 사랑이 구체적인 인간을 향해 열려있는 사랑이라고 사랑의 문제를 강조한다. 김병익, 「다시 읽는 광장」, 『광장/구운몽 : 최인훈 전집1』, 문학과지성사, 2006, 341-342쪽.
 오생근은 창(窓)의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이명준의 밀실과 광장 사이에 창이 있다는 것과 그가 창을 바라보고 창 앞에서 몽상에 잠기지만 한 것이 아니라 창 밖의 삶 속에 뛰어들었다고 말한다. 오생근, 「민음의 世界와 窓의 文學」, 『최인훈』,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123-130쪽.
 이동하, 「崔仁勳의 <廣場>에 대한 재고찰」, 『우리文學의 論理』, 정음사, 1998, 155-172쪽.

최인훈 소설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하였지만 다수의 작품을 다루다보니 <廣場>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이었다. 조보라미는 최인훈 소설을 사실주의와 반사실주의로 양분하는데서 나아가 환상성을 사실주의와 비사실주의를 통합하는 과정에 놓고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작가의 유년기적 체험이 작품 속에서 환상으로 표현되어 연구된 논문이 있었다. 그러나 <廣場>에서의 환상성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다수의 논문이 <廣場>을 사실주의로 분석하였고, 몇몇 논문에서 <廣場>의 환상성을 언급하였지만, 갈매기에 대한 환영의 해석에 머무르고 있다.⁷⁾

<廣場>은 남과 북이라는 정치 현실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그로 인한 ‘광장’과 ‘밀실’이라는 한정된 관념의 테두리에서 논의 되어 왔다. 이에 본고는 이명준의 심리 세계를 관념이라는 기존의 해석에서 벗어나 환상이라는 관점에서 논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명준이 겪는 현실의 고통과 그로 인한 환상을 분석하고, 그가 꿈꾸는 세계를 찾아가는 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한 이명준의 심리를 자끄 라캉의 ‘욕망이론’과 에리히 프롬의 ‘도피의 메카니즘’을 적용하여 이명준이 현실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도피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명준의 욕망심리를 파악하고, <廣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더불어 최인훈 소설의 난해성 해소에 기여

7) 김미영, 「최인훈 소설의 환상성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송명진, 「최인훈 소설의 사실효과와 환상효과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송혜영,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나르시시즘의 정신 구조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조보라미, 「최인훈 소설의 환상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허영주, 「최인훈 소설 정신분석학적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최인훈 소설에 관한 다수 논문에서 『광장』과 『회색인』은 사실주의로 분석하고, 『구운몽』과 『서유기』는 환상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광장』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이념 대립의 관점에서만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것은 현실적인 정치 현실에 바탕을 둔 논의의 관점으로 보여진다. 소수 연구자가 『광장』의 환상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할 것이다.⁸⁾

텍스트로는 1976년 8월에 문학과지성사에서 출판한 <廣場>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⁹⁾

II. 이명준의 욕망에 대한 환상

자끄 라캉(Jacques Lacan)은 거울단계의 경험이 주체가 형성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거울단계의 경험은 우리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사고주체(Cogito)”에 근거한 어떤 철학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는 놀이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 속에서 가정되었던 행동들과 그 행동을 반영하는 주변상황이 갖는 관계 즉, 허구적인 합성물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현실 간의 연관성을 경험한다. 이러한 거울단계는 의미의 동일화(identification)로 이해한다. 라캉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주체로 탄생하기 전에 상상계(the imaginary)라는 충만한(plenitude) 세계를 경험한다. 어린 아이는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강한 나르시시즘을 경험하고, 거울 속의 영상과 자신을 동일화한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며,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어머니를 자신과 동일시한다. 아이는 상징계(the symbolic)에 의해 상상계적 욕망을 거세당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사회적 자아, 주체로 탄생할 수 있다. 상징계에 탄생한 주체는 채워질 수 없는 근원적인 욕망¹⁰⁾을 가진 결여(absence)의 존재이다. 주체의 탄생은 상상

8) 최인훈 소설의 난해성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이 언급하고 있으나, 본고의 목적은 난해성 해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난해성 연구는 다음으로 미룬다.

9) 지금까지 『廣場』은 일곱 번의 개작을 거쳤다. 개작을 하면서 이데올로기와 사랑의 관점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명준의 심리분석에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1976년 8월 문학과지성사판을 텍스트로 삼는다.

10) 욕망은 환유이고, 기표이다. 죽음만이 욕망을 충족시킨다.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다. 대상을 실재라고 믿고 다가서는 과정이 상상계이고, 그 대상

계에서 사회적 역할을 하며, 타인과 구분되는 상징계 속의 위치를 인식한다. 주체가 상징계에 진입한 후에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에 숨어 있게 되어 인간은 상상계와 상징계의 중간에 있으며, 주체의 원초적 분열이 이루어진다.¹¹⁾ 인간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욕망이 새로운 대상을 찾아나서는 과정이 실재계(the real)이다.

1. 남한 현실에서 욕망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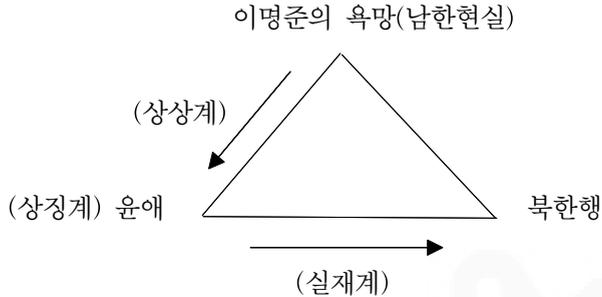
이명준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는 늘 그들을 떠나 있었고, 어머니는 어려운 생활에 바빴다. 그래서 이명준은 어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었다. 유년 시절의 욕구 불만은 성인이 된 후 그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비관적인 남한 정치 현실과 월북한 아버지로 인한 남한 정부의 정신적, 육체적 폭력은 그를 현실에서 더욱 멀어지게 했다.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윤애와의 사랑이다. 윤애와의 사랑은 이명준을 불안한 현실에서 조금은 안정시켜 주었다.

이명준은 폭력적인 남한 사회에 안정하지 못하고, 그가 남한 현실에서 충족할 욕망의 대상을 윤애라고 믿는다. 윤애에게 다가감으로 그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여긴다. 이명준이 윤애를 욕망 충족의 대상이라 여기고, 윤애에게 다가가는 과정이 '상상계'이다. 그리고 윤애의 사랑을 얻는 순간이 '상징계'이다. 이것이 현실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윤

을 얻는 순간이 상징계이다. 여전히 욕망이 남아 그 다음 대상을 찾아나서는 게 실재계이다. 주체의 욕망을 충족시킬 것처럼 보이는 대상이 은유이다. 그러나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다음 대상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 환유이다. 그러므로 욕망은 은유와 환유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쾌락원리를 넘어서』에서 죽음만이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라고 하였다. 자끄 라캉, 『욕망이론』, 권택영 엮음, 문예출판사, 2004, 20쪽.

11) 아이는 어머니와 결합이 주는 충만감에 평온함과 행복을 느낀다.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라캉은 어머니의 근원적 욕망의 상징인 남근(the phallus)으로 설명한다. 자끄 라캉, 위의 책, 40-51쪽 참조.

애와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명준은 불안함을 느끼고,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찾아나서는 게 ‘실재계’이다. 이명준의 욕망을 기표로 하여 기표의 환유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이명준의 욕망 구조-1

남한에서 불안한 삶은 이명준에게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찾게 한다. 그 대상은 윤애이다. 윤애는 이명준이 충족하지 못한 사랑을 요구하기에 좋은 대상이다. 윤애의 사랑을 얻게 된 이명준은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가진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지 않다. 그의 불안한 심리는 윤애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찾아 떠나게 한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욕망은 그가 사랑하는 윤애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할 수 없도록 한다. 윤애를 대신할 새로운 욕망의 대상은 북한행이다. 그는 왜 북한을 택했을까? 남한에서 노력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월북한다. 그의 무의식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환상과 북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명준의 욕망이 다시 상상계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그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아버지와 북한에 대한 환상은 남한 사회의 폭력 앞에 그를 굴복시키고, 그의 무의식 세계에 있는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행동하게 한 것이다. 그를 분노하게 하는 남한의 폭력적 현실은 그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그를 이끈다.

이명준의 욕망은 폭력적인 남한 사회에서 윤애에게로 환치되고, 윤애의 사랑을 얻었음에도 그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결국 다른 욕망의 대상을 찾아 북한행을 결심한다. 이명준은 욕망하는 대상을 얻고도 자기 욕망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대상에 대한 환상을 꿈꾼다. 이명준의 욕망 대상은 기표로서 자리바꿈을 반복한다. 그것은 이명준의 어릴 적 원초적인 욕구에 대한 결핍의 결과이고, 주체적 사랑에 대한 실패를 초래한다.

그는 꿈을 꾸었다. 광장에는 맑은 분수가 무지개를 그리고 있었다. 꽃밭에는 싱싱한 꽃이 꿀벌들 닮은 거리의 속에서 웃고 있었다. 페이브먼트는 깨끗하고 단단했다. 여기 저기 동상이 서 있었다.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름다운 처녀가 분수를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등 뒤로 다가섰다. 돌아보는 얼굴을 보니 그녀는 그의 애인이었다. 그녀의 이름을 잊은 걸 깨닫고 당황해 할 때 그녀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이름 같은 게 대순가요?”

참 이름이 무슨 쓸 데람. 확실한 건, 그녀가 내 애인이라는 것뿐. 그녀는 물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는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얼른 둘러댈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도 이렇게 왔으면 되잖아요?”

“그야 그렇죠. 마음 상하셨어요? 이런 말 물어서?”

그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면서 그녀를 끌어 안았다.¹²⁾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꿈의 해석>에서 “꿈은 완전한 심리적 현상이며, 또한 어떤 소망의 충족이다.”라고 말했다. 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생시의 정신활동에 속하며, 복잡한 정신활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꿈은 소망의 충족이지만 공포의 실현일 수도 있고, 반성

12) 최인훈, 『광장/구운몽』 최인훈전집 1, 문학과지성사, 1976, 116-117쪽. 이하 인용문은 쪽수만 기재하기로 한다.

을 내용으로 하는 꿈일 수도 있다. 또 어떤 기억의 재현일 수도 있다.¹³⁾

이명준은 월북을 결심하고, 윤애와 함께 가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윤애는 그에게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떤 날은 뜨겁게 그를 받아주다가 다른 날은 알 수 없는 터부의 벽으로 그를 밀어낸다. 그는 윤애에게 함께 가자고 요구하지 못한다. 이명준의 윤애에 대한 욕망은 그날 밤 꿈에서 그녀의 이름을 잊은 애인으로 나타난다. 그는 그녀와의 월북이 불가능함을 알기에 그녀를 더욱 갈망한다. 꿈속에서나마 그녀를 그가 원하는 광장에서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이명준의 욕망은 윤애에 대한 불안감과 북한행에 대한 두려움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그는 그녀에게 한 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 월북한다. 그가 바라는 새로운 욕망의 대상이 그곳에는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2. 북한 현실에서 욕망의 대상

이명준은 남한 사회의 반인권적 폭력성을 비판하며, 혁명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북한 사회로 넘어간다. 그러나 북한 사회의 불합리성은 그를 다시 절망하게 한다. 북한에는 개인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고, 집단의 정신적 폭력만이 난무한다. 이명준은 남한에서 안일했던 자신의 삶에 절망하고, 북한에서 매서운 질시를 받는다. 북한 사회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의 정해진 공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혁명으로 이루어진 북한 사회가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처럼 흥분과 정열로 가득

13) 꿈의 소망 충족의 예를 들면, 젊은 시절 프로이트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습관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질색이었다. 그럴 때면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 앞에서 있는 꿈을 꾸곤 했다. 조금 지나서 그는 자신이 아직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린이의 잠꼬대와 꿈은 내적(內的)인 본질의 소망 충족이라고 할 수 있다. 소아기에는 성적(性的) 욕망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면서도, 삶의 욕망 중 하나인 식욕이 많은 환멸과 체념, 풍부한 꿈 자극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현실에서 무엇인가 기대를 뛰어넘은 것을 대하면 기뻐서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야!”라고 외치기도 한다. 프로이트, 『꿈의 해석』 홍성표 옮김, 홍신문화사, 1988, 65-7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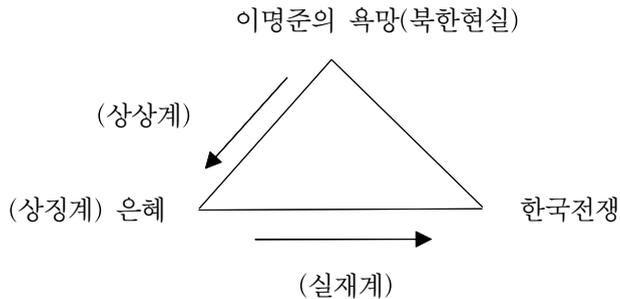
하리라 여겼다. 하지만 북한 사회는 이데올로기의 구호와 허상만 있었다.

‘이명준 동무는, 혼자서 공화국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군. 당이 명령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곧 공화국을 위한 거요. 개인주의적인 정신을 버리시오’라고요. 아하, 당은 저더러는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이면 일마다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당’이 주인공이란 걸. ‘당’만이 흥분하고 도취합니다. 우리는 복창만 하라는 겁니다. ‘당’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한숨지을 테니, 너희들은 복창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일찍이 위대한 레닌 동무는 말하기를……’ ‘일찍이 위대한 스탈린 동무는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위대한 동무들에 의하여, 일찍이 말해져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122)

이명준이 바라본 북한은 개인의 흥분이나 감격이 없고 무기력만이 만연한 사회이다. 북한 사회의 개인은 체제에 의해 억압받는 남한 사회의 개인과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북한 사회에 군림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유와 행동을 통제하는 권력적·정신적 억압이다.

이명준이 새롭게 꿈꾸던 희망의 북녘 땅은 그에게 당의 가르침만을 외치는 잿빛 공화국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생활은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는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찾고, 그의 새로운 욕망의 대상은 은혜이다. 은혜와의 만남은 그의 욕망에 대한 완전한 충족이다.

불안한 북한 현실에서 욕망의 대상인 은혜의 사랑을 얻기 위한 과정이 ‘상상계’이다. 그리고 은혜의 충만한 사랑을 얻는 것이 ‘상징계’이다. 그러나 은혜의 모스크바행으로 인해 그의 욕망 충족에 대한 환상은 깨어지고, 그는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찾아 1950년 8월 한국전쟁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실재계’이다. 북한에서 이명준의 욕망을 기표로 하여 환유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2> 이명준의 욕망 구조-2

사랑의 말에서는, 남자가 열간이고 여자가 재치있게 마련이었다. 남자가 고지식하고 여자가 교활하다는 말일까. 남자는 따지고 여자는 믿는다는 까닭에서일까. 명준은 윤애를 자기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도, 문득문득 남을 느꼈었다. 은혜는 윤애가 보여주던 순결 콤플렉스는 없었다. 순순히 저를 비우고 명준을 끌어들이고 고스란히 탈 줄 알았다. 그런 시간이 끝나면 그녀는 명준의 머리카락을 애무했다. 가슴과 머리카락을 더듬어오는 손길에서 그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와 아들, 아득한 옛적부터의 사람끼리의 몸짓.(138)

이명준은 스스로 ‘졌을 때에만’ 한 여인에게 매달릴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은혜가 북한 현실에서 도피처로의 사랑이었지만, 그녀를 대하는 감정은 다르다. 이명준은 윤애를 떠나왔기에 스스로 ‘죄인’이 되고, 은혜는 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으므로 마치 ‘아들’이 된 듯하다.¹⁴⁾

이명준은 윤애를 사랑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현실에 안주할 수 없었던 도피처로서 윤애에 대한 집착이고 본능일 뿐이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윤애와 은혜에게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느끼려고 한다.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그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14) 이동하는 은혜를 향한 이명준의 마음이 ‘섹스에의 경련적인 함몰이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본다. 이동하, 앞의 책, 169쪽.

은혜에 대한 이명준의 사랑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완벽하게 대체된다. 그는 어머니에게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은혜로부터 받으며, 그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동일시한다. 어머니와 같은 은혜의 아낌없는 사랑은 이명준에게 만족감을 주고, 그러한 만족감은 이명준이 그녀를 배신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한다. 은혜가 모스크바 예술제로 석 달 동안 떠나있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명준은 아이처럼 은혜에게 가지 말라고 떼를 쓴다. 은혜가 모스크바로 가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은 어린 시절 늘 가족을 떠나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 상치(相値)한다. 그로인한 어머니와의 외로운 생활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이명준의 심리적 불안감을 더욱 커지게 했을 것이다. 지금 그가 믿고 사랑하는 은혜가 얼마 동안이라도 곁에 없으면 그가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은 그의 생활을 더욱 외롭고 힘들게 할 것이다. 그의 애절한 부탁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그를 버리고 모스크바로 떠난다. 그러나 이명준은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녀를 더욱 갈망한다. 그녀의 풍부한 사랑 표현은 윤애와 달랐고, 그는 은혜의 배신을 용서할 만큼 그녀를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이다. 이명준은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것은 이명준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서 드러난다. 은혜의 어떠한 잘못도 용서하며, 오히려 그녀의 존재감이라도 느끼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은 나중에 은혜의 죽음에서 삶의 의욕을 잃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명준의 현실 도피처는 ‘여자’이다.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한 무의식적인 욕망을 윤애와 은혜에게 충족하려 한다. 어린 적 성적 욕구 불만은 어른이 되어서 자기애의 리비도로 표현된다. 무의식 속에 있는 욕구 불만은 건전한 이성과의 관계에서 정신적인 신경증으로 드러난다. 자기애의 리비도는 과대망상의 원천이며, 과대망상은 연애생활의 경우에 볼 수 있는 대상의 성적 과대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정신병의 일종이고, 정상적인 연애생활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명준의 윤애와 은

혜를 향한 욕망 충족은 대상 리비도로 볼 수 있다.¹⁵⁾

이명준의 욕망의 대상은 윤애나 은혜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준 내부의 또 다른 대상에 대한 욕망을 상대방으로 착각하는 ‘환상’이다. 이명준이 윤애와 은혜의 사랑을 얻든지 얻지 못하면 죽으려는 것은 이명준 자신이 윤애와 은혜의 사랑의 대상이 되겠다는 자신의 욕망과 나르시스적 환상의 표출인 것이다.

여러 부분에서 이명준은 욕망에 대한 애정결핍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로 인해 그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바라는 환상세계로 도피한다.

3. 타고르호에서의 환상

현실 적응에 실패한 이명준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혼동한다. 그의 정신세계는 정체성 확보와 본능적 자아의 욕구를 바탕으로 이상적 자아(ideal-I)에 대해 끊임없이 환유한다. 그의 환상은 갈매기의 등장으로 나타난다. 그가 가는 곳마다 갈매기는 그에게 무언가 암시하는 존재로 보여진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이명준은 전쟁 포로가 되고, 포로 송환 과정에서 중립국을 선택한다. 남한과 북한 어디에도 자신의 안식처는 없다고 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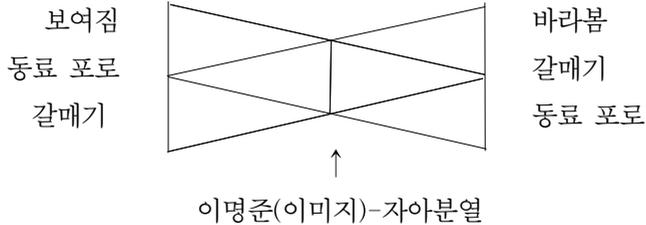
15) 리비도는 정신의학자 S.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에서 쓴 용어로, 욕망이나 생명적 충동 등 인간의 모든 행동 속에 숨어 있는 근원적 욕망을 뜻하며, ‘성욕 에너지’라고 말한다. 리비도는 태어나면서 서서히 발달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자신의 육체로 향하나 성장하면서부터 자기 이외의 것으로 향한다. 리비도는 발달했다가 다시 되돌아가기(퇴행)도 하는데, 자아로 향하는 경우에는 나르시스즘적(자기애) 리비도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향하는 것을 대상 리비도라고 한다. 프로이트는 대상에 부속되어 있는 리비도, 즉 대상에 의해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의 표현인 리비도가 이 대상을 버리고 자신을 이에 대치하는 일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나르시스즘’이라고 말한다. 성애의 도착에서 성인이 된 개인이 보통 자기 이외의 성적 대상에 쏟는 애정의 전체를 통틀어 자기 신체에 주는 것이다. 프로이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입문』, 서석연 옮김, 범우사, 1990, 329-348, 421쪽 참조.

하고 새로운 삶을 위하여 중립국을 택한다. 그러나 중립국을 향하는 배 위에서 일어나는 잦은 충돌은 그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안겨준다.

조금만 더 죄면 끝장이 날 것 같았다. 그때 명준의 시야에 퍼뜩 들어 온 것이 있다. 그 인물이 보고 있다. 저쪽, 둘러선 사람들의 머리너머, 브리지쪽으로 난 문간에, 획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왜 그런지, 순간 그의 팔에 맥이 풀리며, 자기 몸이 돌면서 배 위에 다른 몸의 무게를 느낀다.(104)

중립국을 향하는 배 위에서 이명준과 김은 싸운다. 예전에 그들의 요구를 듣기만 하던 이명준이 아니다. 포로 상륙 문제는 이명준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김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다. 그때 갈매기가 나타나 그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명준은 갈매기가 실재인지 환각인지 알 수 없다. 그는 갈매기가 그를 바라보는 것을 느끼고, 그의 시선은 갈매기에게 옮겨진다. 여기서 시선과 응시의 분열¹⁶⁾이 이루어진다. 동료 포로들은 이명준을 바라보고, 이명준은 동료 포로들을 바라본다. 그 다음 갈매기가 이명준을 바라보고, 이명준이 갈매기를 바라본다. 이러한 시선은 바라보는 것과 보여짐의 이동이다. 보여짐은 바라봄을 앞선다. 이명준을 중심으로 한 시선 이동은 그를 혼란스럽게 하며, 여기서 자아분열이 이루어진다. 이명준의 시선에 의한 자아분열 현상은 그를 더욱 환상 세계로 빠져 들게 한다. 이명준을 향한 보여짐과 바라봄의 시선 이동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6) 시선이란 보는 사람의 시선에 선행하는 ‘발아(shoot, pousse)’의 은유이다.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을 참고하면,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응시가 시선을 앞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는 한 곳만을 바라보지만 나는 모든 방향에서 보여진다. 분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접하게 되는 한계성을 의미한다. 응시는 시야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을 상징하며, 신비로운 우연의 형태로, 갑작스럽게 접하게 되는 경험, 즉 거세공포를 형성하는 결어로 제시된다. 시선과 응시, 시각의 영역에 충돌(drive)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시선과 응시의 분열이다. 자끄 라캉, 앞의 책, 204-205쪽.



<도표 3> 이명준의 시선과 응시의 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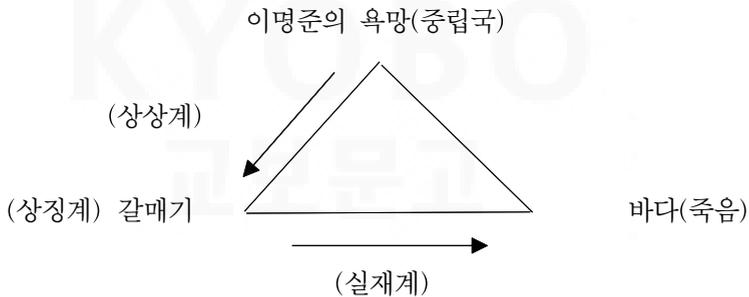
이명준은 배를 타면서 줄곧 자신을 쫓는 시선을 느낀다. 그 시선은 갈매기이다. 갈매기는 무엇을 일깨우기 위해 그를 쫓는 것이며, 그는 왜 그러한 갈매기를 쫓아 총부리를 겨누는 것인가. 갈매기와 이명준은 계속 숨바꼭질을 하며 서로를 쫓는다. 자신을 쫓는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고 막연한 환상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그를 쫓는 눈빛은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내면의 환영과 목소리이다. 남한과 북한, 윤애와 은혜. 어디서도 안주할 수 없는 이명준의 현실은 자아 정체성에 대한 욕구와 원초적 욕망을 끊임없이 갈구한다. 충족될 수 없는 현실의 절망적인 상태는 그로 하여금 현실을 도피하게 한다.

총구멍에 똑바로 겨눠져 없혀진 새가 다른 한 마리의 반쯤만 작은 새인 것을 알아 보자 이 명준은 그 새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 보았다. 그러자 작은 새하고 눈이 마주쳤다. 새는 뻥히 내려다 보고 있었다. 이 눈이었다. 뱃길 내내 숨바꼭질해온 그 얼굴 없던 눈은. 그때 어미 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우리 애를 쓰지 마세요? 뺨에 댄 총뿔이 부르르 떨었다.(194-195)

총부리를 겨누는 이명준의 눈에 보이는 갈매기는 은혜와 그의 딸이다. 그것이 환상일지라도 그의 눈에는 은혜와 딸이다. 이명준은 의식적으로 은혜와 딸에 대해 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의 무의식 속에는 은혜

와 딸이 자리잡고 있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신의 과거를 잊으려고 중립국을 택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자신의 본성을 잊은 채 성격을 마음대로 골라잡아 살고 싶다. 결국 그의 의식과 무의식은 자아 분열을 일으키며 그가 어디로 가야할지 결정하지 못한다. 주체의 분열은 그에게 현실보다는 환상을 쫓게 하며, 그는 현실과 환상 세계를 혼동한다.

이명준은 중립국을 향하는 배에서 그의 욕망의 대상인 눈빛을 쫓는다. 이명준의 욕망이 눈빛을 쫓는 과정이 '상상계'이다. 그리고 눈빛의 주인 이 은혜와 딸의 분신으로 여겨지는 갈매기임을 깨닫는 과정이 '상징계'이다. 또, 갈매기들이 유영하는 푸른 바다로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찾아 나서는 것이 '실재계'이다. 그의 실재계는 결국 푸른 바다인 죽음을 상징한다. 그의 욕망의 환유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4> 이명준의 욕망 구조-3

이명준은 과거를 잊을 수도 없고, 과거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과거의 삶이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현재의 삶도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미래의 삶에서 충족하기 위해 중립국을 택한 것은 아니다. 중립국을 선택한 것은 자신의 욕망 충족을 포기한 삶인 것이다. 중립국에서의 희망은 없다. 그저 과거만 잊으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마음은 갈매기의 출현과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을 도피자로 만든다. 갈매

기가 은혜와 딸의 환영으로 보여짐으로 이명준은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을 도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이 그에게는 없다. 이명준은 은혜와 딸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과거로부터 도피할 수 없는 혼동된 정신세계는 그를 푸른 광장이라 부르는 푸른 바다로 인도한다. 이명준은 갈매기를 따라 그녀들이 있는 푸른 바다로 뛰어든다.

최인훈은 <廣場>에서 이명준이 삶에 대한 허무주의로 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상인으로 지각의 세계가 잘못되어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문학적 상징으로 분석하면 환상 속에서의 생의 완성이라고 말한다.¹⁷⁾ 이명준은 자아분열로 인해 판단력을 상실했지만, 그는 자신이 바라던 이상적인 자유의 광장을 찾아간 것이다.

4. 이명준의 심리 세계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고립된 인간의 불안정성으로 ‘도피의 메카니즘’을 설명한다.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던 관계가 끊어지고, 완전히 분리된 실체로서 외부 세계와 직면하면, 무력감과 고립감의 참을 수 없는 상태를 극복해야 하는 두개의 과정이 나타난다. 하나는 정서적이고, 감각적이며, 지적인 능력을 진정으로 표현하며, 성실성과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유’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개인적 자아와 세계와의 사이에 생긴 분열을 소멸시킴으로 고독감을 극복하는 것이다.¹⁸⁾ <廣場>에서 이명준은 자아와 세계와의 분열에서 생긴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해 현실의 자유를 포기하고, 환상 속의 자유를 선택한다.

17) 김현, 「변동하는 시대의 예술가의 탐구」, 『최인훈』,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32쪽.

18) 도피의 메카니즘으로는 권위주의와 파괴성과 자동순응성을 들 수 있다. 에리히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원창화 옮김, 흥신문화사, 1988, 119-120쪽 참조.

순간 그의 주먹이 태식의 얼굴을 갈겼다. 수갑이 체인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쓰러지는 태식을, 발길로 걷어찼다. 태식의 얼굴은 금시 피투성이가 됐다. 그 핏빛은, 몇 해 전 바로 이 건물에서, 형사의 주먹에 맞아서 흘렸던, 제 피를 떠올렸다. 그때 형사가 하던 것처럼, 태식의 멍살을 잡아일으켜, 또 한 번 얼굴을 갈겼다. 제 몸에 그 형사가 움아 앉은 것 같은 환각이 있었다. 사람이 사람의 몸을 짓이기는 버릇은 이처럼 몸에서 몸으로 옮겨가는 것이구나. 몸의 길. 그는 발을 들어, 마루에 엮어진 태식의 아랫배를 차질렀다. 꼭 제 몸이 허수아비 놀 듯, 자기와 몸 사이에 짜증스런 걸음이 있었다. 그 틈새를 없애려고, 쉬지 않고 팔과 다리를 놀렸다. 태식은 더 움직이지 않고 마루에 배를 깔고 누워 있었다. 쭈그리고 앉아서 죄수의 코에 손을 대 보았다. 다음에 가슴을 짚어 보았다. 죽진 않았어. 허리를 펴고 일어서면서 아래 주머니를 찾아 손수건을 꺼냈다. 손에 묻었던 피를 빨아들인 수건은 금방 질척거렸다. 아직도 깨끗한 가장자리를 써서 손톱까지 말끔히 닦은 다음, 그것을 방 귀퉁이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158)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이명준은 공산군이 되어 서울로 들어온다. S서 취조실, 자신이 고문 받던 장소에서 은인의 아들이자 자신의 친구였던 태식을 심문한다. 태식이 끌려왔다는 소식과 고문을 받아 망가진 그의 모습에 이명준은 이상한 쾌감을 느낀다. 이명준은 태식을 심문할 때, 예전에 남한에서 자신이 당했던 그대로 폭력성을 드러내며 고문한다. 그때 그를 고문하던 형사의 혼이 그대로 그의 몸에 옮겨 붙은 것 같다. 이명준은 태식이 남한에서 자신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신분의 태식을 지금 고문하는 것은 그에게 열등감과 과거 자신의 하찮음을 해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명준의 무의식 속에는 태식에 대한 강한 열등감이 잠재되어 있다. 태식을 고문하면서 느끼는 쾌감은 마조히즘적인 경향¹⁹⁾을 보여준다.

19)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인간이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결여된 힘을 얻기 위해 외부의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자신을 융합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복종과 지배를 표현하는 마조히즘과 사디즘의 경향을 나타낸다. 마조히즘적인

이는 다시 만난 윤애를 대하는 이명준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왜 이러세요? 사정을 아시면서.”

명준은 허하게 웃었다.

“사정? 옛날 애인이지만, 지금은 친구의 부인이라는? 알아. 아니깐 그러는 거야.”

그는 한 발 다가섰다.

“용서해주세요. 이리저 마세요.”

그녀의 말이 명준의 가슴에 불을 댕겼다. 됐다.

“용서? 무얼 용서하란 말이야.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가르쳐 줘.”

그는 물러서는 그녀를 따라 한 발씩 따라갔다.

“윤애. 난 지금도 윤애 사랑해.”

“정말 그러시다면 저를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소릴. 사랑한대두. 모욕? 그 부르주아적 상투어를 버려. 윤애는 아직도 바보군. 그 동안에도 그걸 배우지 못했나?”

윤애를 벽에 밀어 붙였다. 한 손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아 벽에다 붙박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붙잡힌 팔을 빼려고 얼굴이 빨갱게 달았다. 그녀의 이마에 솟은 땀방울을 찬찬히 들여다 보았다. 왜 그녀는 마다해야 할까. 그 때도 이렇게 마다했다. 그 때와는 달라. 그 때는 난 너한테 반한 참한 젊은이였지. 지금은 이긴 자로서 너를 능욕하려는 거다. 저고리 동정에 손가락을 걸어 아래로 잡아 찢었다. 앞죽지가 떨어져 나갔다. 그녀는 숨결이 한꺼번에 높아지면서 주저앉을 듯이 했다. (160-161)

오랜 기간은 아니더라도 윤애는 이명준이 사랑했던 여자이다. 그런 여자를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면 어느 정도 연민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녀 간의 일을 어떤 정의로 정할 수는 없지만, 이명준의 태도는 분

성향은 열등감, 무력감, 개인적인 하찮음에 대한 감정 등으로 나타난다. 의식적으로 감정에 불만을 품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힘에 의해 스스로 무력하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느낀다. 외부 힘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뚜렷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기를 해치고 괴롭히는 성향까지 있다. 에리히 프롬, 앞의 책, 121-137쪽 참조.

명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연민이 보이지 않는다. 그가 윤애를 떠난 것이 지, 윤애가 그를 떠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윤애가 그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해달라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님을 보여준다. 윤애에 대한 이명준의 행동은 사디즘적인 충동에 의한 권위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은혜와의 사랑에 실패하고 복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명준은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기 분열적인 내면세계를 가학적으로 드러낸다. 태식과 윤애를 대하는 폭력적인 모습은 이데올로기의 폭력성과 현실도피적인 권위주의의 모습을 나타낸다.

마조히즘과 대조되는 사디즘의 성향은 타인을 도구화하거나, 타인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타인이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고자 하는 욕망이다. 사디즘적인 인간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다고 느끼는 대상을 명백하게 사랑한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 죽음으로만 멈추게 할 수 있는 끊임없는 욕망’의 존재를 ‘전 인류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성향’이라고 말했다.²⁰⁾ 그에게 권력추구는 악마적인 것이 아니라, 쾌락과 안전을 추구하는 욕망의 합리적인 결과이다. 마조히즘과 사디즘의 성향은 권위주의적인 도피의 메카니즘이다.²¹⁾

이명준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타인을 학대하고, 자신도 학대한다. 결국 현실 적용에 실패하고, 전쟁 속에서 도피처를 찾는다. 이 과정에서 현실적 욕구의 억압은 거짓 욕구로 대치되고, 본래의 자아가 거짓 자아로 대치된다. 자아의 상실과 함께 나타나는 거짓 자아의 대치

20) 에리히 프롬, 앞의 책, 125-126쪽 재인용.

21) 도피의 메카니즘에서 파괴성은 참을 수 없는 개인의 무력감과 고립감에 기인하며, 외부 세계를 파괴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 외부 세계로부터의 위협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자기를 강화한다. 도피의 메카니즘에서 자동순응성은 개인이 자기 자신이 됨을 그치고 변화하는 것이다. 문화적인 양식에 의해 부여되는 성격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상태로 변화한다. 에리히 프롬, 앞의 책, 152-158쪽 참조.

는 개인을 심한 불안상태로 만든다. 이것은 타인의 기대에 대한 반영이며, 자신의 완전성을 상실하고 회의(懷疑)를 나타낸다.

<廣場>은 이명준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가 끊임없이 현실 세계에 적응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국 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 적응에 실패를 반복하면서 현실 도피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푸른바다를 유영하는 자유를 꿈꾸며 환상세계로 떠난다.

Ⅲ. 결론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 욕구하고, 그 대상을 찾아 헤맨다. 그 대상을 찾아 원하는 것을 이루면 안주해야 하지만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난다. <廣場>에서 이명준은 현실 적응에 실패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선다.

이명준의 욕망은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에 의한 대상의 환유 과정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충족하지 못한 욕구는 성인이 되어 그 대상을 바꾸어가며 충족하고 있다. 이명준이 추구하는 첫 번째 욕망은 어린 시절 충족되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머니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사랑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를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두 번째 욕망은 운애에 대한 사랑이다. 운애는 폭력적인 남한 사회에서의 도피처이고, 그의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욕망을 찾아 북한 사회로 떠난다. 세 번째 욕망은 은혜에 대한 사랑이다. 은혜는 정신적 억압이 난무하는 북한 사회에서의 도피처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할 만큼 그의 욕망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그의 욕망에 대한 환상은 은혜의 죽음으로 깨어지고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찾아 떠난다. 은혜의 죽음은 이명준을 중립국이라는

도피처로 인도한다. 그러나 중립국을 향하는 타고르호에서 동료 포로들과의 충돌은 현실에서 그가 안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결국 이명준은 은혜와 그의 딸의 환영으로 보이는 갈매기를 따라 푸른 바다로 뛰어든다. 그곳이 그가 찾는 영원한 도피처라고 착각한다.

현실과 이상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욕망의 대상을 계속 환유하는 이명준의 행동은 결국 자아를 분열시키고, 현실에서 주체적 삶을 실패하게 한다. 자아가 분열된 상태에서 이명준의 심리 세계는 타자와의 소통이 단절되어 고립된다. 그의 심리 세계는 현실과 환상이 혼재되어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한다. 현실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욕망의 대상을 환치시키는 원인이 된다. 은혜와 딸의 환영을 쫓아 그들이 유영하는 푸른 바다는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자유로운 곳으로 나타난다. 이명준은 그가 찾는 이상적인 세계를 현실에서 찾지 못하고, 결국 환상 세계로 빠져든다. 환상 속의 푸른 바다가 그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보여진다.

이명준이라는 인물을 통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추구는 본능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욕망하는 것을 얻어도 그것에 안주하기 못하고, 새로운 욕망을 추구하기도 한다. 하물며 욕망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잃은 것처럼 무의미하게 살거나 최후에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환상은 인간의 나약한 심리를 파고드는 신경증적 현상이다. <廣場>에서의 환상은 환각과 착각 등의 거짓 지각이다. 욕망충족이라는 기대 심리는 이명준에게 새로운 대상을 추구하는 동력의 기제가 되고, 그를 환상 세계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본능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심리를 작품 속 이명준을 통해 면밀히 고찰하였다. 이명준의 심리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심리를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이며, 나아가 최인훈 소설의 인물 심리 연구에 일보 전진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최인훈, 『광장/구운몽』, 최인훈전집 1, 문학과지성사, 1976.
- 강은아,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분단 콤플렉스 양상」,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권영민, 「정치적인 문학과 문학의 정치성」, 『작가세계』제4호, 세계사, 1990. 2. 73-80쪽.
- 김기우, 「최인훈 소설 연구: 최인훈의 예술론과 창작이론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경옥, 「최인훈 소설의 이데올로기 비판 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미영, 「최인훈 소설의 환상성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병익, 「다시 읽는 『광장』」, 『광장/구운몽 : 최인훈 전집1』, 문학과지성사, 2006, 323-342쪽.
- 김인호,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주체성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 현, 「사랑의 재확인」, 『광장/구운몽 : 최인훈 전집1』, 문학과지성사, 1985, 343-352쪽.
- , 「변동하는 시대의 예술가 탐구」, 『최인훈』,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15-43쪽.
- 배미선, 「최인훈의 광장 연구-실향의식과 자기동일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백 철, 「하나의 돌이 던져지다」, 《서울신문》, 1960. 11. 27.
- 송명진, 「최인훈 소설의 사실 효과와 환상 효과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송혜영,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나르시시즘의 정신 구조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신동한, 「확대해석의 의미」, 《서울신문》, 1960. 12. 14.
- 양윤모, 「최인훈 소설의 '정체성 찾기'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연남경, 「최인훈 소설의 자기 반영적 글쓰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오생근, 「믿음의 세계와窓의文學」, 『최인훈』,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123-130쪽.
- 이동하, 「崔仁勳의 <廣場>에 대한 재고찰」, 『우리文學의 論理』, 정음사, 1998, 155-172쪽.
- 유종호, 「소설과 정치적 함축」, 『최인훈』,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98-122쪽.
- 유종호 외, 『문학비평 용어사전 하』,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국학자료원, 2006, 1038쪽.
- 정영훈,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주체성과 글쓰기의 상관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조보라미, 「최인훈 소설의 환상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한형구, 「최인훈론:분단시대의 소설적 모험」, 『문학사상』, 1989. 4.
- 허영주, 「최인훈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Fromm, Erich, 『자유로부터의 도피』, 원창화 옮김, 홍신문화사, 1988, 119-137, 152-158쪽.
- Freud, Sigmund, 『꿈의 해석』, 홍성표 옮김, 홍신문화사, 1988, 65-70쪽.
- _____, 『정신분석학 입문』, 서석연 옮김, 범우사, 1990, 329-421쪽.
- Jackson, Rosemary, 『환상성-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문학동네, 2001, 56-60쪽.

Lacan, Jacques, 『욕망의 이론』, 권택영 엮음, 문예출판사, 2004, 20-51,
204-205쪽.

Todorov, Tzvetan, 『환상문학 서설』, 이기우 옮김, 한국문화사, 1996,
131쪽.



<Abstract>

Study of Fantastic Feature in Choi, In Hoon's *KWANG JANG* : Based on psychology of Lee, Myung Joon's desire

Park, Hae-Rang*

The experiences in the youth are represented in the various works of Choi, In Hoon. The experiences appear as fantasy and cause confusion repeating the fantasy and reality. This paper is aimed to analyze the agony in the real world and the fantasy of Lee, Myung Joon in *KWANG JANG* and then study on the process to find the world he dreamt.

Lee, Myung Joon, main character, tried to satisfy his desire that was not filled from his mother in his youth by changing an object of desire. His pursuing object of desire is replaced; from mother, South Korean society, Yoon Ae, North Korean society, Yoon Hye, neutral nation to sea. Psychological anxiety over reality is the reason why he changes the object of desire, but Lee, Myung Joon is the character who is faithful to his desire.

Freud said that human desire can be satisfied by his/her death. This means that desiring nothing is death itself. Endless desire of human being is natural. Thus, humankind develops.

The desire for instinct of Lee, Myung Joon is concluded with the freedom in a fantasy world, but psychological contemplation on his

* Dongguk University Gyeongju campus

fantasy and death needs more research.

Key Words : A fantasy, Desire theory, Metaphor and metonymy,
Identification, The imaginary, The symbolic, Self
dissociation, Authoritarianism.

■ 논문접수 : 2013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3년 7월 20일

■ 게재확정 : 2013년 8월 5일

KYOBO
교보문고